

<수능 직전 마지막 작품 적중 리스트>

수능 적중 예상 작품

1. 전원사시가&강호사시가
2. 만분가
3. 속향전
4. 유예

구성방식

1. 작품 전문
2. 논문 요약
3. 기출 문제

국어 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국어는 김도성

강호사시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濁醪)* 계변(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춘사>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몸이 서늘해옴도 역군은이샷다

<하사>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 띄워 던져 두고
이몸이 소일(消日)해옴도 역군은이샷다

<추사>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 넘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縷繹)*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군은이샷다

<동사>

맹사성 - 「강호사시가」

- *탁료: 막걸리.
- *역군은이샷다: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 *초당: 별채로 지은 초가집.
- *누역: 비나 눈을 막기 위해 벗짚 등으로 만들어 입는 도롱이.

▣ 핵심 정리

- 갈래: 정형시, 평시조, 연시조
-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 주제: 강호에서 노니는 사계절의 즐거움
-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임.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임.
 - 자연에서의 즐거움도 임금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강호가도를 노래함.
 -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이념이 결합됨.
 - 동일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식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함.
 - 의인법을 활용함.

전원사시가

봄날이 점점 기니 殘雪(잔설)이 다 녹거다
梅花(매화)는 벌써 디고 버들 가지 누르렀다
아히야 울 잘 고티고 菜田(채전) 갈게 하야라

<제1수-춘>

<해석>

봄날이 점점 길어지니 남은 눈 다 녹는다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 누르러졌구나
아이야, 울타리 잘 고치고 채소밭을 갈게 하야라

<봄>

陽坡(양파)의 풀이 기니 봄 빛치 느껴 있다
小園(소원) 桃花(도화)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하야라

<제2수-춘>

<해석>

별바른 언덕에 풀 자라니 봄빛이 늦었구나
마당의 복사꽃은 봄비에 다 지는구나
아이야, 쇼 잘 먹여 논밭 갈게 하야라

<봄>

殘花(잔화) 다 딴 後(후)의 綠陰(녹음)이 기퍼 간다
白日(백일) 孤村(고촌)에 낮둠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제3수-하>

<해석>

남은 꽃 다 딴 후에 녹음이 깊어 간다
한낮의 외딴 마을에 낮에 오는 닭의 소리구나
아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깨우자

<여름>

園林(원림) 寂寞(적막)하니 北窓(북창)을 빗겨시니
고문고 노라라 낮잠을 씨와괴야
(**종장 소설**)

<제4수-하>

<해석>

마당의 수풀은 적막한데 북창에 비쳤으니
거문고 놀아라 낮잠을 깨웠구나
(**종장 소설**)

<여름>

흰 이슬 서리 되니 7을히 느껴 있다
긴 들 黃雲(황운)이 흰 빛치 피거고야
아히야 지분 술 걸러라 秋興(추흥) 계워 하노라

<제5수-추>

<해석>

흰 이슬이 서리되니 가을이 깊었구나
긴 들밭의 누런 구름 한 빛으로 피었도다
아이야, 빛은 술 걸러라 가을 흥취에 겨워하노라

<가을>

東籬(동리)에 菊花(국화) 피니 重陽(중양)이 거에로다
自蔡(자채)로 비즌 술이 허마 아니 니것다냐
아히야 紫蟹(자해) 黃鷄(황계)로 按酒(안주) 장만하야라

<제6수-추>

<해석>

동쪽 울타리에 국화 피니 중양절이 거의로다
올벼로 빛은 술이 차마 아니 익었더냐
아이야, 꽃게에 누른 닭으로 안주 장만하야라

<가을>

北風(북풍)이 노피 부니 압 뵈히 눈이 던다
茅簷(모첨) 춘 빛치 夕陽(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豆粥(두죽) 니것느냐 먹고 자라 하노라

<제7수-동>

<해석>

북풍이 높이 부니 앞 산에 눈이 진다
초가집 처마에 찬 빛이 석양이 거의로다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자려 하노라

<가을>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덥더니
긴 좁 계우 씨니 아적 날이 늙파 있다
아히야 서리 녹았느냐 닐고자도 하노라

<제8수-동>

<해석>

어제 쇠족 끓인 구들(의 온기) 오늘에도 아직 덥더니
긴 잠 겨우 깨니 아침 해가 높이 떠 있다
아이야, 서리 녹았느냐 일어나고자 하노라

<가을>

이바 아히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歲月(세월)이 少年(소년)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하다가 이 白髮(백발)이 되었노라

<제9수-제석>

<해석>

이바라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겨워 마라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시절을 빼앗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를 즐겨워하다가 이 흰머리가 되었노라

<선달 그림>

이바 아히돌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지고 새니 歲月(세월)이 몇춧 가리
百年(백년)이 하 草草(초초)하니 나눈 굶버 하노라

<제10수-제석>

<해석>

이바라 아이들아 날 신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고 새고 지고 새니 세월이 얼마나 가리
백년이 하도 바쁘니 나눈 굶어 하노라

<선달 그림>

신계영 - 「전원사시가」

▣ 핵심 정리

■ 주제 : 전원생활의 유유자적한 삶

■ 형식상 특징 : 춘하추동을 각 두 수씩 노래하고 이어 제석을 노래

※제석이란 설달 그믐밤이 란 특정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출하추동과 동일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지나는 의미가 그들과 대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에, 파문혀 유족한 삶과 한적한 흥취를 즐기는 조화로움을 주제로 담아 노래하고 다만, 그러한 조화의 기쁨을 영원토록 지속하는데 장애가 되는 백발의 안타까움을 덧붙임으로써 현실에의 자족적 삶을 더욱 강조하였다.

<전원사시가와 강호사시가>

- 전원사시가 크로노토프 - 2022, 송미지, 고정희

<보기>로 나올만한 내용

공통점

<강호사시가>와 <전원사시가>는 사시의 영원한 순환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시가 장르를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차이점

<강호사시가>는 사시가 장르와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 낙관적이고 이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전원사시가>는 사시와 이질적인 자연과 인간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전대의 도학적인 자연과는 구분되는 현실적인 시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인간 화자의 생사의 문제를 시에 반영하여 '제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어긋남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가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

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 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추(秋)> -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출 가니
뒷 뵈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허느니 <1수>

삿갓에 도롱이 낚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훗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계는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뵈혀는 새가 굿고 들히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비에 삿갓 쓴 저 @ 늙은이
낙디에 재미가 깃도다 눈 깃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하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딛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7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흰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하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뫼히 눈이 딛다
모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하로라 <동(冬)1>

이바 ㉠ 아히돌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헌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31704

1)(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시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④ 사시와 월령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 ⑤ 사시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2)(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3)(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둑'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

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옴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4)㉠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그물 깊고', '산전을 훑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다)에서 '비즌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은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와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와 ㉢은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조위 - 만분가

서사 : 유배를 당한 상황

천상(天上) 백옥경(百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려시니
천문(天門) 구만 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쉬여지여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올거든
삼청(三淸) 동리(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흠리 나라 자미궁(紫微宮)에 나라 올라
옥황(玉皇) 향안(香案)전에 지척(咫尺)에 나아 안자
흉중(胸中)에 싸힌 말삼 쓸커시 사로리라

본사 : 유배 생활이 10년 동안 이어짐

아아 이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느껴 나니
황하수(黃河水) 말다만난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도 가이 업고 가태부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流落)하니 백구(白鷗)와 버디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난 듯 괴난 듯
남의 업슨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니음 절너 님의 옷슬 못 하야도
바다 가튼 님의 은혜 추호(秋毫)나 갑프리라
백옥 가튼 이내 마음 님 위하여 직희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섯거치니
일모수죽(日暮修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샤
유란(幽蘭)을 것거 쥐고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弱水) 가리진디 구름길이 머흐러라.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나셔
초취(憔悴)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러컨쟈.

<현대어 풀이>

천상 백옥경 십이루가 어디인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궁궐이 가려 있으니
구만 리 먼 하늘을 꿈에서조차 갈동말동하구나.
차라리 죽어서 억 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의 녀이 되어
배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올지 못하거든
삼청 동리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흐르듯 날아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전에 가까이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삼 실컷 아뢰리라

아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니
황하 물이 말다마는 초나라 사람 굴원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어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숨이 나오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아양 떠는 듯 사랑하는 듯
남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을 만들지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백옥 같은 순결한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고 있었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섯거 치니
일모수죽에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로놓인 데 구름길도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취한 이 얼굴이 임 그리워 이리 되었구나.

자신이 죄가 없음을 토로

천층랑(千層浪) 한가운데 백 척간에 올라더니
무단(無端)한 양각풍(羊角風)이 환해(宦海) 중에 나리나니
역만장 소희 빠져 하흠 모라노다
노나라 흐린 술희 한단(邯鄲)이 무슨 죄며
진인(秦人)이 취한 잔에 월인(越人)이 우음 타고
성문(城門) 모던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압희 심은 난이 반이나 이우레라.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오동 점은 비에 외기러기 우려 갈 제
관산(關山) 만릿길이 눈에 암암 발피는 듯
청련(靑蓮)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슷쳐 보니
화산(華山)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왜라
망부(望夫) 산전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드로고 바라다가 안력(眼力)이 진(盡)뚫던가
낙화(落花) 말이 업고 벽창(碧窓)이 어두으니
입 노른 샷기 새들 어이도 그리 건자.
팔월 추풍(秋風)이 띠집을 거두우니
빈 깃에 싸인 알이 수화(水火)를 못 면토다.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白髮)이 일야에 기도 길샤

간신패들에 대한 비판과 임금의 부름을 기다림

풍파에 헨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해에 주즙이나 무양(無恙)한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봉정(鵬程)을 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치어 흑룡 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없고 어안(魚雁)이 무정(無情)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는지고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驛路)를 바라보니
옥량 명월(玉樑明月)을 옛 보던 낮빛인 듯
양춘(陽春)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碧海) 넓은 가에 녀조차 흠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太上) 칠위 분이 옥진군자(玉眞君子) 명(命)이시니
천상 남루에 생적(笙笛)을 울리시며

높은 파도 한가운데 백척간두 같은 벼슬에 올랐더니
무단한 회오리바람이 환해 중에 불어와
억 만장 깊은 연못에 빠져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겠노라.
노나라의 술이 흐린 것과 한단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진나라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은 월나라 사람이 웃은 탓이란 말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오동나무 저문 비에 외기러기 울며 갈 때
관산으로 가는 만 리 길이 눈에 선하니 밟히는 듯
이백의 시를 다시 읊고 팔도의 한을 슷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산 앞에 석양이 거의 지는구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시력이 다했던가?
떨어지는 꽃은 말이 없고 푸른 비단 창문은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이 어미를 그리는구나.
팔월 추풍이 초가지붕을 뒤집어엎으니
빈 새집에 싸인 알이 황액을 면하지 못하도다.
생리사별의 아픔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 백발이 하루밤 사이에 길기도 길어졌구나.

풍파에 헨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해에 주즙이나 무고한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봉정을 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치어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하는가.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들보에 비치는 달빛은 옛 보던 낮빛인 듯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넓고 푸른 바닷가에 녀조차 흠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의 명령이시니

천상(天上) 남루(南樓)의 생적(笙笛)을 울리시며
지하 북풍(北風)의 사명(死命)을 벗기실까
죽기도 명(命)이요 살기도 하나리니
진채지액(陳蔡之厄)을 성인도 못 면하며
누설비죄를 군자인들 어이하리

부정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태 비판과 체념적 태도

오월 비상(飛霜)이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대한(大旱)도 원기(冤氣)로 되었도다
초인남관(楚囚南冠)이 고금(古今)에 한돌이며
백발황상(白髮黃裳)에 서러운 일도 하고 많다
건곤(乾坤)이 병이 들어 혼돈(混沌)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음(沈吟)할 듯 관색성(貫索星)이 비취는 듯
고정의국(孤情依國)에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 눈이 먼 말 같이 눈 감고 지내고저
창창막막(蒼蒼漠漠)하야 못 믿을손 조화(造化)로다
이러나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도척도 성히 놀고 백이(伯夷)도 아사(餓死)하니
동릉(東陵)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남화(南華) 삼십 편에 의론(議論)도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거든 싫고 미워라

자신의 운명 한탄

고국 송추(故國松楸)를 꿈에 가 만져 보고
선인 구묘(丘墓)를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간장이 굵이굵이 끊어졌구나
장해음운에 백주(白晝)에 흠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淵藪)런지
이매망량이 실컷 젖은 가에
백옥(白玉)은 무슨 일로 청승(靑蠅)의 깃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가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추국(木蘭秋菊)에
첩여(妾如) 소군(昭君)이 박명(薄命)한 몸이런가

임금의 처분을 촉구함

군은(君恩)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구나

천상 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의 운명이니
진채지액을 성인도 못 면한다는데
누설비죄를 군자인들 어이하리.

오월에 날리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큰 가뭄도 원기로 되었도다.
죄 없이 옥에 갇힌 죄수가 고금에 한돌이며
백발황상에 서러운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음할 듯 관색성이 비취는 듯
고정의국에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눈 먼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저
멀고도 막막하여 못 믿을 것은 조화로다
이러나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도척도 성하고 백이도 굶어죽으니
동릉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남화 삼십 편에 의론도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거든 싫고 미워라.

고국 송추를 꿈에 가서 만져 보고
선인 구묘를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간장이 굵이굵이 끊어졌구나.
장해음운에 백주에 흠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런지
이매망량이 실컷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보금자리가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한없이 우는 뜻을
하늘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추국에 향기로운 탓이런가.
반첩여와 왕소군이 박명한 몸이런가.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구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燭淚)같이 임자 없이 구니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回) 만겁(萬劫)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결사:자신의 앞날에 대한 궁금함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님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이우는 듯
 월중소영(月中疎影)이 님의 옷에 비취거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저
 빈 냇싯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궤에 달려 있어
 내 문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일편장안(一片長安)을 일하(日下)에 바라보고
 외로 머뭇거리며 옳이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이런가
 이몸이 전혀몰라 천도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섬긴 뜻을
 주공(周公)을 꿈에 뵈어 자세히 여쭙고저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더냐
 아아 이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 내 뜻 알이 곧 있으면
 백세교유(百歲交遊) 만세상감(萬世相感)하리라.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바람 비 뿌린 소리가 임의 귀에 들리거나,
 만겁이나 윤회를 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달빛 속의 희미한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취거든
 불쌍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 싶구나.
 빈 냇싯대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궤에 달려 있어
 내 문은 누역 속에 임 향한 꿈을 깨어
 일편장안을 한눈에 바라보고
 그르게 머뭇거리거나 옳게 머뭇거리는 것이
 모두 이 몸의 탓이런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가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육십사괘 천지 만물 생긴 뜻을
 주공을 꿈에 뵈어 자세히 여쭙고 싶구나.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더냐.
 아!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내 뜻을 알 사람이 있으면
 영원토록 사귀고 영원토록 공감하리라.

▣ 핵심 정리

- 갈래: 가사, 유배 가사
- 성격: 한탄적, 비분적, 원망적
- 주제: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 연군지정
- 특징
 -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연군의 정서가 보다 간절하게 느껴짐
 - 고사를 활용하여 유배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함.
 -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유배 중인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조위-만분가

만분가의 심리적 흐름과 '만분'의 함의-2015, 조하연
조위의 <만분가>에 나타난 원통함과 그 치유 맥락-2019, 강미정

<만분가>에는 유배를 떠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억울함이 깊어 원통함과 분노로 옮겨감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유배가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충신연주지사적 성격이 희석되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굴원의 <이소>로부터 고려시대 정서의 <정과정곡>으로 이어지는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 문학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만분가>는 '깊은 원통함에 대한 노래'이다. 분(憤)은 감정이 북받치고, 분하다는 의미도 있기에 <만분가>는 내면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담아낸 노래임이 제명에서부터 강하게 드러난다.

원통함은 억울함을 풀지 못해 한이 되어 버린 고통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감정은 종종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감정은 오래 간직하면 고통이 되고, 용서를 통하여 해소해야 될 것으로 간주된다. 원통함은 그 감정의 고통을 계속 기억하려는 의지와 자신의 원통함을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행위의 결합으로 더욱 생생해진다.

유가적 전통에서 원(怨)은 윗사람을 원망할 수 있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신하라면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이끌면서 간언을 하고, 그 간언이 절실하여 원망의 언사로 나타날 수 있다. <만분가>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원통함을 절절하게 풀어냈기에 시가이원(詩可以怨)을 실천한 작품이다.

1~10행: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11~27행: 유배지에 있는 자신을 굴원과 가의에 빗대며 억울함을 표출한다.
28~46행: 창졸간에 나락에 떨어진 자신과 동료의 처지를 슬퍼한다.
47~58행: 함께 지내던 벗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는다.
59~74행: 억울한 유배생활에 원한과 울분만 쌓여간다.
75~87행: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간장을 태우며 간신배가 들끓는 조정을 걱정한다.
88~101행: 모든 것이 슬픈 운명 탓이려니 하며 금강산의 학이 될 것을 생각한다.
102~120행: 억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주공을 불러서라도 답을 듣고 싶어 한다.
121~125행: 마침내 뜻 맞는 동료를 기다리리라 다짐한다.

<만분가>는 조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욕망, 자신처럼 억울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의 환기, 원통함을 일으킨 대상에 대한 지적 등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조선조 유학자로 시교에 관심을 두었던 조위는 한시를 지을 때에도 감정의 절제를 중시하며 예에 맞는 선에서 그치는 시작(詩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지만, <만분가>를 통해 원통함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결사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인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원통함을 문학작품 속에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은 조선조의 유학자, 특히 조선전기의 유학자들에게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원망함의 주체가 분명하고 지식인의 고뇌가 시로 승화한 원(怨)이라면 긍정적인 정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분가>를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실제 일어난 괴로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만분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겨운 관계라 할 수 있는 원(怨)에 대한 서사를 적극적으로 풀어내면서 원(怨)을 소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써낸 작품은 첫 번째 독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작가 자신이다. 또한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작가가 작품을 읽거나 창작하게 되는 행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

는 과정이기도 하고, 내면에 묻혀져 있는 자기서사를 표출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만분가>가 조위 자신의 원통함을 분출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동료들에 대한 위무(慰撫)를 함께 드러냈기에 <만분가>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을 위한 작품이 된다. <만분가>에서 조위가 분출한 원통함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동료들을 대신한 것이다. 원통함의 서사가 작가 개인의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역사·사회 집단의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문학치료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서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분가>는 원(怨)을 드러내고 원(怨)을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 조위와 그가 속하였던 사림파의 치유를 위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본사에 나타난 심리적 흐름

본사는 서사에서 화자가 옥황상제에게 마음껏 아뢰고 싶은 말씀의 실체이다. 마음에 맺힌 분을 풀어놓는 것이 화가의 목적인데, 우선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1. 압축적 회고

화자가 사유를 구성하는 요소와 패턴

- ① 화자 자신에 대한 연민
- ② 고통스러운 처지에도 잊을 수 없는 임
- ③ 임과 이별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화자의 운명

유배의 고통은 임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임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질수록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까닭을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심과 갈등의 심화

회고에 이어 서술된 내용은 회고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반복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연민, 임에 대한 그리움, 운명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일종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3. 전환과 각성

연민, 그리움, 회의가 반복됨에 따라 화자의 부정적 심리가 점차 고조되는 한편,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식에 일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체념과 아쉬움

무심을 지향하고 임에 대한 미련을 지우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주저함을 피하지 못한 화자는 다시 천도를 떠올린다. 화자는 천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머물지 않고 천도 그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조화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지우지 못한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보기>로 나올 만한 내용

-만분가를 화자의 갈등을 정리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조위'라는 인물에게 "만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통하고자 하나 통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 자신의 운명을 주재하는 천도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보해 보려는 것이 만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만분(萬憤)’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매우 원통함’이다.

그러므로 「만분가」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 억울하고 원통하게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천상 백옥경에서 인간세계로 추방된 것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천상과 인간세계라는 설정을 한 이유는 유배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억울하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사람을 천상에 둬으로써 구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즉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는 본능의 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가사는 겸손하고 정중하다. 분노는 숨기고 또 숨겨서 그 끝자락만 살짝 내비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觸樓)*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윤희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

(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插)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 위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같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삽한즉: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30711

6)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7)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8)(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
- 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
- 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축류',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변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0)㉠~㉣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 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
- 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 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
- 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11)(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때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서 사퇴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짝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값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31509b

1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3)㉠~㉤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14)<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1 > —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 보 기 2 > —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곁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A]

<제2연>

-작자미상, 「서경별곡」-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축루(觸虬)*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ㅁ음껏 솟아올라
 ㄱ을 둘 볼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춰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조위, 「만분가」-

*공산 축루: 텅 빈 산의 해골.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1906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춰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16)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혼'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ㄱ을 둘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B]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속향전

<속향전>의 제의적 성격과 의미 - 2020, 변숙자

<보기>로 나올만한 내용

<속향전>에서 속향이 다섯 번이나 반복적으로 겪는 횡액과 이에 대한 극복 과정은 무속신화 주인공의 반복적 죽음과 재생의 과정과 유사하다. 또한, <속향전>에 내재한 신화가 지닌 제의적 성격¹⁾에 주목하게 한다.

‘제의적 성격’은 ‘가면 쓰기’로 볼 수 있는데, 가면을 쓰는 행위는 현실적 자아를 잊고 새로운 자아가 되어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지며, 가면을 벗으면 다시 일상으로 회귀한다.

<속향전>에서는 두 주인공이 제의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초월계와의 활발한 교섭을 이끌어낸다. 그 결과 일상계와 초월계의 간극이 좁혀짐은 물론,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허물어 두 세계의 시공간적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이를 통해 태초의 신성 능력을 잃어버린 주인공들은 천상의 질서로 재가입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 주목해야 할 부분

- 속향과 이선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분

속향

속향의 알몸 체험은 4번째 닥친 액운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속향은 포진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후, 갈대밭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불에 타 죽을 화액을 당한다. 이때 불을 다스리는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해주는데, 화덕진군은 느닷없이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자기 등에 업히라고 명한다. 불에 타 죽게 생긴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옷을 벗고 알몸이 되는 행위는 일상적 상황 맥락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속향의 별거벗은 몸은 성숙한 여인의 알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제의에서 여성의 알몸은 육체를 통해 무한한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여인의 원형, 즉 대모성의 속성을 공유한다. 이로 인해, 이전의 일상적 자아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즉 충만한 생산력과 재생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변모를 꾀하는 제의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선

이선은 선계에서 옥가락지, 벽이용, 계안주, 개언초를 구해 와서 신선 위에 얹고, 귀에 넣고, 눈을 씻고, 먹게 하는 일련의 제의적 행위를 통해 죽은 지 20일이나 지난 황태후를 살려낸다. 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제의적 경험으로서 이를 통해 천상 존재로서의 신적 능력과 자질이 입증된다.

1) 이전의 자기와는 다른 무엇으로 변형되는 주술-종교적 경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과 장 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은 더욱 망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하노라.”
 하니 그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하신 일이니 다시 고칠 길이 없나이다. 남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로 남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오. 장 승상 댁에서도 십 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니옵니다. 또한 항아께서 사향이 남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이미 상제께 아뢰어 벼락을 치게 했으며, 장 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남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남자를 찾아 모셔 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남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나 앞으로 두 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 있으니, 남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소서.”
 “무슨 액이 또 있을까?”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 후에야 태을선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이에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망극하거늘, 이제 남은 두 액을 어떻게 견디리오? 장 승상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두 액을 면할까 하노라.”
 하니 그 선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없나이다. 이제 남자께서는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쇠 두 명*에 들어가는 액일지라도 어찌 그 액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A] 장 승상 댁과의 인연은 십 년뿐이요, 거기 계시면 태을선군이 사는 곳과는 삼천삼백육십오 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나이다. 또한 선군이 아니면 남자의 힘으로 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리이다.”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묻기를,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선녀가 대답했다.
 “예전에 항아의 말씀을 듣자오니,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라.’ 하시더이다.”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듯 고행을 겪게 하고, 선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는고?”
 “천상에 계실 때 남자께서 먼저 선군을 희롱했기에 남자의 죄가 더 무겁나이다. 선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항아께서 선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선군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냈나이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선군을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 세상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중략 줄거리]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지만 이선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후 황태후가 병이 들자, 병부 상서 이선은 선약을 구하기 위해 떠난다.

병부 상서가 용왕께 사례한 후 선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로 나오니, 용자가 벌써 붉은 조롱박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서가 용자와 함께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는데도 화살처럼 빠르게 바다 위를 떠났다.
 얼마쯤 가다가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저 혼자 가면 아무 데도 걸릴 것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지금 상공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진객이 되었사오니,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용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 주고 가겠나이다.”
 이에 상서가 묻기를,
 “수궁에서는 용왕이 으뜸이라. 바로 수로로 가면 쉬울 터인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 가려 하는가?”
 하니 용자가 대답했다.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나고,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 주고 가야만 하나이다.”
 상서와 용자가 한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 이름은 ㉠ 회회국이였다. 그곳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게처럼 옆으로 다녔으며, 왕의 이름은 경성이였다. 용자가 물가에 배를 대고 혼자 들어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공문을 보고 물었다.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인가?”
 용자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니 왕이 즉시 공문에 날인해 용자에게 돌려주었다. 왕이 용자와 함께 물가로 나와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상서는 그 왕이 누구인지 몰라 공경하기만 하더라.
 용자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후 상서를 모시고 또 한 나라에 가니, 그곳은 함말국이였다. 그곳 사람들은 화식은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살며, 왕의 이름은 필성이였다.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태을성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하라.”
 하고 날인한 후 공문을 돌려주었다.
 또 한 나라에 가니, 그곳은 유리국이였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과 비슷했으나 생선처럼 비린 것을 먹지 않았으며, 왕의 이름은 기성이였다. 용자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화를 내며 묻기를,
 “선계는 인간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고 공문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용자가 사정하며 말하기를,
 “태을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국의 병부 상서가 되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들어 ㉡ 봉래산의 개언초를 얻으러 가다가 우리 ㉢ 용궁에 왔나이다. 그리하여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오니, 저의 낮을 보아 허락해 주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번엔 통과시켜 주겠지만, 다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고 마지못해 날인하고 공문을 돌려주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두명: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12209

18)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자는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 ②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 ③ 장 승상은 사향이 숙향을 모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숙향을 찾았다.
- ④ 필성은 용자에게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 ⑤ 선녀는 갈대밭과 낙양 옥중에서 곤욕을 치른 숙향의 어리석음을 질타하였다.

1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용왕의 조력을 통해 상서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지키는 공간이다.
- ③ ㉢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 ⑤ ㉣은 용자와 상서가 육지의 ㉠을 경유하여 향하는 곳이다.

20)[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물의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다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는, [B]는 여러 인물의 발화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1)<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었지만 그 죄업의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다. 숙향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이다.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선의 서사는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는 환상성이 드러난다. 이 같은 이질적 서사는 당대 인식에 내재된 남녀 차별적 시선이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① 상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것에서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선녀가 숙향의 죽을 액을 하늘이 정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숙향의 고난의 과정이 징벌적인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군.
- ③ 이선이 조룡박을 타고 바다 위를 떠가거나 신이한 세계의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선의 서사는 환상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④ 상제가 선군을 마지못해 귀양 보낸 것과 달리 숙향은 고행을 겪도록 한 것에서 천상의 죄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이선이 호화롭게 지내는 것과 달리 숙향은 여러 차례의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속향이 물에 뛰어들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속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 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빠 저어 속향의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이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속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속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게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향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하니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국에 모여 잔치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심에 수변으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와서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속향이 선녀더러 물어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 강물을 평지같이 다닙니까?”

선녀 말하기를,

“그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전일 부인의 부친 은덕으로 살아났으며 이제 와서 부인을 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속향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고행하다가 더러운 이름을 쓰고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하여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한 것인데 그대들이 멀리까지 와서 수고로이 구하여 주시니 감격하여이다.”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께서 인간 진애에 잠겨 저희를 몰라보십니다.”

하고 ㉠ 이슬 같은 차를 주며 말하였다.

“이를 먹으면 자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속향이 받아먹으니 그제야 월궁소아로서 태을과 글을 지어 창화*하고 월연단을 흠쳐 태을을 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 일과 그 아이 둘이 부리던 시녀였던 것이 기억났다. 말미암아 붙들고 반기며 말하기를,

“내가 전생의 죄가 중한 탓으로 부모를 잃고 고생은 하려니와 장 승상 댁에서 얻은 누명은 무슨 일이나?”

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부인은 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장 승상 집 인연도 다만 십 년 뿐이었습니다. ㉡ 사향이 부인을 모함한 죄로 옥제께서 진노하시어 이에 벼락을 내려 죽였으며, 부인의 애매함도 이미 장 승상 집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들에 와서 부인을 찾다가 못 찾고 도로 갔으나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거니와 앞에 또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속향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지난 일도 망극한데 또 두 액을 어찌하리오? 승상과 부인이 나의 애매함을 알았다고 하니, 그리로 가서 액을 면하고자 하노라.”

하였다. 선녀가 말하기를,

“이는 다 하늘이 정하신 것으로 임의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을이 있는 곳이 장 승상 집과 거리가 삼천삼백 리니 서로 만날 길이 아득하고 태을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

다.”

하니 속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어디에 있으며 인간 성명은 무엇이냐?”

선녀가 말하기를,

“저번에 향아의 말씀을 들으니 ‘태을은 낙양 땅에 위공의 자식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 합니다.”

하였다. 속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동시에 적강하여 태을은 어이 영화로이 되고, 나는 어찌 고생하느냐?”

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당초 부인이 먼저 죄를 지었으므로 궁곤함을 겪게 하였고, 태을은 상제를 근시하던 선관으로 상제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향아의 청으로 부득이 적강은 시켰으나 귀히 점지하셨습니다.”

하였다. 속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있는 곳이 삼천삼백 리라 하니 태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가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디가 만나겠느냐?”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이 홀로 가시면 득달키 어려우나 저희 연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요,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며 능파곡을 부르고 배를 띄우니, 빠르기가 쏜살 같아 순식간에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은 여기서 내려 동쪽으로 가십시오.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 동정굴 같은 것 두 알을 주며 말하기를,

“가다가 시장하거든 잡수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니, 속향이 사레하고 배를 내려 동쪽으로 향하여 갔다. 배가 고파 선녀가 주던 것을 먹으니, 배가 부르고 천상 일은 다 망연히 잊어버려 인간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짧은 계집이 외로이 홀로 가다가 옥을 보기 쉬우리라.’ 하고 촌가에 비단 옷을 주고 헨 옷으로 바꾸어 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한 눈을 감고 한 다리를 저는 체하며 막대를 짚고 갔다.

- 작자 미상, 「속향전」 -

- * 향아: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 * 창화: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21403b

2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앞으로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학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현실과 꿈의 세계를 교차시켜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3)<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향전」은 등장인물들이 초월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나 벌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① 용녀는 초월계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상서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였군.
- ② 용녀는 옥제의 명령을 어기고 위기에 빠진 숙향을 구하고자 인간계로 왔군.
- ③ 숙향은 초월계에서 태들과 글을 지어 노래하고 월연단을 흠친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났군.
- ④ 숙향은 인간계에서 부모를 잃고 장 승상 댁에서 누명을 쓰며 벌을 받고 있군.
- ⑤ 태들은 초월계에서 쫓겨났지만 숙향과 달리 인간계에서 영화롭게 살고 있군.

24)㉠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는 숙향의 잃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② ㉠과 달리 ㉡는 숙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 ③ ㉠과 달리 ㉡는 숙향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 ④ ㉠과 달리 ㉡는 숙향이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⑤ ㉠과 ㉡는 모두 숙향이 지나 온 삶을 돌아보도록 한다.

25)㉢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때, 빈 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향이 옥제에게 벌을 받은 것은 _____(이)라고 할 수 있군.

- ① 자업자득(自業自得)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 ④ 고진감래(苦盡甘來)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생은 공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문득 파랑새가 날아와 이생의 앞에 앉았다. 놀라서 보니 다리에 피 묻은 비단 조각이 매여 있었다. 이생이 그 비단 조각을 끌어서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숙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이승에 와서도 갚기 어렵다. 금석(金石)같은 인연이 변하여 바람이 되었구나. 향기로운 꽃이 속절없이 낙양 옥중에서 흙이 되리다. ㉠슬프다! 난군을 다시 못 보고 죽게 되니,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리다.

이생이 대성통곡하며 그 글을 고모님께 드린 후, 낙양 옥중으로 가서 낭자와 함께 죽으려 하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아직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너무 서둘지 말거라.”

하고 할미집에 사람을 보내 사정을 알아오라 하였다.

(중략)

이때 상서가 김전의 서찰을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김전을 계양 태수로 보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낙양 수령으로 보내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문득 여부인이 오신다 하는지라. 상서가 놀라며 반갑게 맞아들이니, 부인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그대가 이제 벼슬과 위엄이 높다 하여 부모와 누이도 버리려 하는가?”

이에 상서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 부인이 말했다.

“상서는 재상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면서 인륜 가운데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가?”

“오륜을 으뜸으로 삼나이다.”

“그러면 상서와 나의 관계도 오륜에 드는가?”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 했으니, 어찌 오륜에 들지 않으리이까?”

“상서가 비록 벼슬이 높으나 내게는 다섯째 아우이고,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어 계시지 않으니 내가 또한 아버지 버금이라. 그런데 상서는 나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니, 쓸데가 없도다. 차라리 상서의 마음이나 시원하도록 여기서 죽으리라.”

이에 상서가 대경실색하여 관을 벗고 땅에 내려와 사죄하며 말했다.

“이 아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어서 말씀해 주소서.”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어려서부터 내가 양자로 삼아 길렀으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지라.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선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니, 저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람을 배필로 삼지 못하면 맹세코 이 세상에 살지 못하리라’ 했네.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니,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또한 그 리하면 마음을 잡고 학업에 정진하고자 할 것이니 선이 급제하

[A]여 벼슬을 할 수 있으리다.’ 하여 혼인을 주관한 것이요. 그런데 상서가 그토록 이 일을 분하게 여겨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하니, 그것이 무슨 도리요? 내가 비록 잘못 했을지라도 내게 조용히 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몰래 낙양 수령에게 기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려 했으니, 그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대장부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천하를 다스려야 하거늘, 어찌 그토록 무례한 일을 하여 후세에 시뻘거리가 되려고 하는가?”

여부인이 상서를 심하게 꾸짖으니 상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여쭙기를,

“누님께서 주관하신 줄 몰랐나이다. 요즘 ‘선이 부모 모르게 미천한 사람을 얻었다’하여 조정이 들끓기에 낙양 수령에게 기별했나이다.”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

이 없는지라. 옛날 송나라 황제도 정궁을 폐하고 후궁을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한 일이 있소. 내가 비록 그대 모르게 주관했으나, 그 낭자는 첩과는 다르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는 낭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오.”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지만, 만누이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리다.”

하고 새로 보낸 낙양 수령을 불러 분부했다.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도 말리시니 그럴 수가 없도다.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놓아주되, 멀리 보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때 상서가 생각하기를, ‘선이 낙양에 있으면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것이니,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중략)

이생이 서울에 이르러 상서께 절을 올리니, 상서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라. 우리가 알아서 네 배필을 정해줄 것인데, 내가 우리도 모르게 멋대로 미천한 여자를 얻었다 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나 누님의 낫을 보아 이번에는 용서하오니, 급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말고 태학에 가서 공부하거라.”

이에 이생이 울면서 사죄하고 태학으로 갔는데, 상서는 여부인 때문에 숙향을 죽이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하더라.

이때 김전은 계양 태수로 옮겨가고, 새 사포가 부임하여 즉시 낭자를 불러올려 말하기를,

“너는 누구인데 상서 님 귀공자를 유혹하여 학업을 전폐케 했느냐? 마땅히 죽일 것이로되 특별히 용서하여 풀어 주노니, 이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거라.” 하여 분부하고 내쫓았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26)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 부임한 낙양 수령은 숙향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 ② 상서는 여부인의 말을 받들어 자신의 의사를 바꾸고 있다.
- ③ 여부인은 상서의 부탁을 받아서 이선의 혼인을 주관하였다.
- ④ 숙향은 옥에 갇히게 되자 이선을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이선은 숙향이 옥에 갇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할미집에 갔다.

27)[A]에 나타난 ‘여부인’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④ 후세의 평가를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 ⑤ 이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향전」에서의 성리학적 윤리 규범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윤리 규범은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고 봉건적 신분 관계를 고수하려는 장치로 나타난다. 반면 성리학적 윤리 규범을 앞세워 자유의지를 옹호하기도 하며 기존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기도 한다.

- ① 상서가 이선과 숙향을 떼어 놓으려 하는 것은 봉건적 신분 관계를 고수하려는 것이겠군.
- ② 숙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겪는 것은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군.
- ③ 이선이 부친의 명에 따라 이별하는 것은 기존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여부인이 오류를 내세워 상서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유로운 애정을 옹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⑤ 이선이 미천한 사람과 혼인하여 조정이 들끓었다는 것은 지배층이 신분 질서에 대해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29) ㉠에 나타난 ‘숙향’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옹이 졸다가 말하기를,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옹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옹이 깨어나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인께 물으니 마고할미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 산다하기로 거기 가 보니 과연 숙향이 누상에서 수를 놓고 있거늘 보고 온 일을 표하기 위해 불명이를 내리쳐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의 불탄 데를 이르라.” / 하였다. 이랑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 노옹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고선녀는 범인(凡人)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가 애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하고 이미 간 데 없었다. 그리하여 이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선시(先時)*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 남자더러 말하기를,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 태율이요, 인간 이선입니다.” / 하니 남자가 물었다.
“태을인 줄 어찌 아셨습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瑤池)에 가 반도(蟠桃)*를 받고 조적의 수(繡) 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임이 분명합니다.”
하니 남자가 말하였다.
“세상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옥지환(玉指環)*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할미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 하였다.
하루는 남자가 누상에서 수를 놓더니 문득 난데없는 불뚝이 떨어져 수 놓은 봉의 날개 끝이 탔는지라 남자가 놀라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가 말하기를,
“이는 화덕진군의 조화니 자연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랑이 목욕재계하고 황금(黃金) 일정(一定)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가 맞이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취한 술이 엇그제야 깨어 해정(解醒)하려고 하던 차에 오늘 공자를 만나니 다행한 일입니다.”
하니 이랑이 말했다.
“할미 집의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갚지 못하였기로 금전 일정을 가져와 정을 표하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제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위에 주성(酒星)이 비치고 밑에는 주천(酒泉)이 있습니다. 가득찬 술동이의 임자는 따로 있는 법이라,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 리를 왕래하셨습니까?”
하니 이랑이 탄식하며 말했다.
“할미의 말을 곧이듣고 숙향을 찾으려 갔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남군은 참으로 신의 있는 선비입니다. 그런 병인(病人)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자못 감사할 것입니다.”
하니 이랑이 말하였다.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할미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숙향이 이미 죽었습니까?”

이랑이 말하기를,
 “노전에 가 노옹의 말을 들으니 낙양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집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궂도다.”
 하니 할미 정색하여 말하기를,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속향을 데려 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하였다. 이랑이 말하기를,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속향이 수놓는데 불뚱을 나리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징간(徵看)하라.’ 하였으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물으니 할미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이랑이 말하기를,
 “방장(方丈), 봉래(蓬萊)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이 또한 죽으리로다.”
 하고 술도 아니 먹고 일어나거늘 할미 웃으며 말하기를,
 “숙녀(淑女)를 취하여 동락(同樂)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걸인을 괴로이 찾습니까?”
 하니 이랑이 말하기를,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속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미가 또 말하기를,
 “제가 아무쪼록 찾아 기별할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이랑이 말하기를,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바라노라.”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삼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 기쁘게 맞이하여 서당(書堂)에 앉히고 물었다.
 “할미는 어찌 오늘에야 찾아 왔는가?” / 할미가 말했다.
 “낭군을 위하여 속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속향이란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시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곳에 기별한 즉 들은 응답하나 걸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랑이 대희하여 말하기를,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갔다가 보이라.”
 하고 술과 안주를 내어 관대하니 할미 응락하고 돌아가 낭자더러 이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낭자가 보고 ‘맞습니다.’ 하니 할미는 웃고, 즉시 이랑에게 가 말했다.

- 작자 미상, 「속향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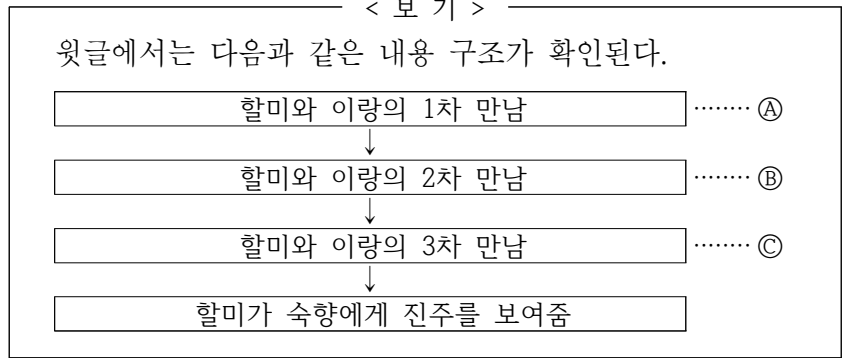
- * 선시: 이전의 어느 날.
- * 반도: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선경에 있는 복숭아.
- * 옥지환: 옥으로 만든 가락지.

21803

30)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1)<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할미는 자신과 속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겨 이랑과 속향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 ② ㉠과 ㉡ 사이에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선녀인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 ③ ㉡에서 할미는 속향을 두고 ‘병든 걸인’이라 칭하여 속향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 ④ ㉢에서 할미는 이랑에게 자신과 속향의 관계를 밝히고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진행되면서 속향과의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2)<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속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 ① 이랑이 속향을 찾아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다는 것은, 이랑과 속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속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뚱’을 보고 놀란 것은, 이랑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③ 이랑이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속향을 생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들의 인연이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이랑이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것은, 속향과의 인연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속향이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은, 징표를 통해 이랑이 자신의 인연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3)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랑과 속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랑은 ㉠ 하겠군.”

- ① 감개무량(感慨無量)
- ② 면종복배(面從腹背)
- ③ 의기소침(意氣銷沈)
-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 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뛰어나고 시서(詩書)에 능통하였다. 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蓬萊山)의 설중매(雪中梅)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李]나무를 접하면, 지엽(枝葉)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梅香)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현 군자(大賢君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일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列女不更二夫)라 하나이다.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他門)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매,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네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버지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水火)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이제 이량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次妃)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 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닳 돌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貴家)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天定)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혼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聖敎)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경녀(卿女)의 절행(節行)이 족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족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옆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라 선의 차위(次位)에 굴(屈)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違越)하오리까?”

“짐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숙향이,

“황상께서 명초(命招)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 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公)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臣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辭婚)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 ㉔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國戚)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家中)을 탁란(濁亂)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淸德)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하오.”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君命)을 거역함이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御命)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양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30410

34)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매향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 ② 황제는 두 집안의 갈등을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주었다.
- ③ 양왕은 위왕의 간계로 혼약이 깨진 것으로 오해하였다.
- ④ 위왕은 혼사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숙향은 이선이 혼사 문제로 원한을 사게 될까 염려하였다.

35)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위 글의 ‘이선’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뢰옵니다. …… 소신(小臣)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채하였는데 천만 뜻밖에 부마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의 명으로 이미 받은 납채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피 정가와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 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 백관이 다 다투어 간(諫)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① 황실의 부마가 되는 길을 마다한 것은 좋지만, 거절의 사유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 ② 비록 황제의 명일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서는 안 된다.
- ③ 부인을 둘씩이나 두는 일이 불가한데도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④ 집안의 일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일을 가볍게 보았으니, 이는 불충(不忠)이 아닐 수 없다.
- 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자기 뜻을 당당히 밝혀야지, 병을 핑계로 모면하려 한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모두 수능 대박나길, - 국어는 김도성 -

36)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 ② 칭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알리려 한다.

37)위 글 이후의 사건을 <보기>와 같이 예상해 보았다. 그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양왕의 주장으로 이선이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어 집을 떠난다. 이선은 위기에 처하지만 선계(仙界)의 도움으로 벗어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돌아온 뒤 이선은 양왕과 화해하고,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후 매향은 숙향과 의종계 지내며, 이 선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여럿을 두고 다복하게 일생을 보낸다.

- ① 양왕의 태몽에 선관이 나타나 매향의 훗날을 예언하였다.
- ② 매향은 이선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 ③ 매향은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④ 위왕은 혼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양왕에게 사과하였다.
- ⑤ 양왕은 매향의 일로 이선에게 앙심을 품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니 간 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㉗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오니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㉘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㉙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찼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㉚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㉛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깎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㉜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염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A]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39)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항	(ㄱ)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ㄴ)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ㄷ)
숙향	피해자	(ㄹ)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40)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 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율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41) ㉠에 나타난 숙향의 처지를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③ 혈혈단신(孑子單身)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42)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A]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하나 []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 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나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B]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 가실 곳이 또한 []

머으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알,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 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올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하더니 숙부인 알,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알,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었으매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남자가 옥 같은 두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받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알,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뉘집 딸이라 하나뇨?”

남자 알,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알,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윗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작자 미상, <숙향전> -

*경액: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43)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4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5)<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남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남자가 왈,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남자에게 왈,

“남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남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내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너무 으리으리하여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 월궁향아의 행차러라. 향아가 속향을 보고 왈,

“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거늘, 속향이 향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향아가 옥황께 여쭙오되,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서 복록*을 정하소서.”

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긴 ㉢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남자를 깨워 왈,

“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畫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옥룬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 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은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이선 왈,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왈,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하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일내라.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을 하고 모든 선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상제 전교*하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긴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룡교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껌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속향전」 -

* 복록: 복되고 영화로운 삶.

* 전교: 임금의 명령을 내림.

32203

46)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속향을 보고 싶어 했다.
- ② 속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 ③ 속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 ④ 속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 ⑤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47)㉠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속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② 속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속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속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속향에게 미리 알려 주고 있다.
- ⑤ 속향이 태을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 ② ㉡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③ ㉢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 ④ ㉠, ㉡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 ⑤ ㉡, ㉢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4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속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① 속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 ② 속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에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속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 ③ 속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속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 ⑤ 속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속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세한도&면면함에 대하여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고재종, 「세한도」

*꼭두서니: 꼭두서닛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붉은색 염료로 씀.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묘사적, 감각적
- 제재 : 농촌의 현실
- 주제 : 힘겨운 농촌의 현실과 이를 견디게 하는 희망
- 특징
 - 김정희의 '세한도'를 변용하여 농촌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 줌.
 - 푸른색과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농촌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그려 냄.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뿜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복소리는
왜 등등등등 울리겠니

- 고재종,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우듬지 : 나무줄기 꼭대기.
*면면함 :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예찬적, 교훈적
- 제재 : 느티나무
- 주제 :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면면함
- 특징
 - ① 특정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줌.
 - ②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함.
 - ③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제시함.

이 시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한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미래에는 희망차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 제시된 '면면함'은 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면면함'은 시련 속에서도 생을 계속 이어 나가고 언젠가는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삶의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화자는 이농 현상으로 피폐화된 농촌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면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이 의미하는 바는?

‘별’은 일반적으로 ‘희망’을 의미한다. 나무의 꼭대기 줄기에 별을 매달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느티나무와 농촌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느티나무가 겨울의 추위를 견뎌 내고 봄이 되어 푸른 잎들이 돌아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농촌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련을 이겨 내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의 말하는 방식과 그 효과

이 시는 화자가 특정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았니’, ‘~겠니’ 등의 시구는 이러한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와 이러한 느티나무를 보며 위안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독백적, 실존적
- 배경: 6.25전쟁 당시 겨울의 어느 산골 마을의 눈 덮인 들판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 제재: 전쟁, 인간의 존재와 죽음
- 주제: 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전쟁의 비인간성) ②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는 전쟁의 비극성(잔인성)에 대한 비판
-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서술함.
 - 호흡이 짧은, 현재형 문장을 많이 사용함

오상원-<유예>의 초점화 연구, 신희교, 2019

서사적 전개

- ①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 움 속에 갇힌 그는 처형까지 한 시간의 유예가 주어진 가운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죽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② 그는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후퇴하면서 부하들을 잃고 홀로 남하한다.
- ③ 남하하던 중, 그는 적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되려는 한 사람을 목격하고 적의 사수에게 총을 쏘았다가 붙잡히게 된다. 그리고 몇 번의 심문에도 전향을 거부한다.
- ④ 남쪽을 향해 의지적인 신념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그는 마침내 총을 맞고 쓰러진다.

2) 초점화

- 3) 내적 초점화: 작중인물-초점화자(1인칭 주인공 시점)
(내적 초점화는 소설 속 세계에 대한 제한적 인식, 감정이나 심리에 대한 주관적 초점화의 특징을 보인다.)
- 4) 외적 초점화: 화자-초점화자(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
(외적 초점화자는 대상을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지각할 수 있다.)

초점화의 기법(내부 지각, 외부 지각)

내부 지각

초점화 대상이 내부로부터 지각된다는 것은 외적 초점자에게 초점화의 대상의 의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외적 초점자에 의해 보여지는 내부로부터 지각되는 초점화 대상 (서술자에 의한 심리 묘사)

ex) 그는 생각했다. 그는 느꼈다. 그는 알았다. - 것처럼 생각되었다. 등의 지시어가 텍스트에 나타남

*초점화 대상의 내적 상태가 외적 행동 속에 함축될 때 (행동 관찰에 의한 심리 추측)

ex) 걸보기에는, 분명히, 마치-, -같았다 등의 양상적 표현이 나타남.

2) <유예>는 초점화자 자신이 스토리 내에 위치하며 작중인물 초점화자의 형식을 취하는 내적 초점화로서의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두 개의 양태가 한 단락 안에서 교차하기도 한다.
 3) 1인칭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된다고 보자.
 4) 3인칭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된다고 보자.

-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게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귀퉁한 냄새가 코를 지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 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몸이 떨린다. 뼈 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동부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윗글은 초점자가 초점화 대상의 의식을 꿰뚫어 보고 있다. “몸을 웅크리고~결정지을 거요”는 온전히 초점자에 의해 투시되는 초점화 대상의 의식이다.

심문자의 심문의 부분을 제외한 모두 12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인칭의 관점으로 읽힌다. 텍스트 전체에서 ‘그’로 표현되는 3인칭 격의 대명사가 실제로는 1인칭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는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야기 밖에 있는 화자-초점자(3인칭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 초점화 대상인 한 인물(그)의 의식을 내부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빛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이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만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귀퉁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윗글은 외적 초점화의 내부 지각(3인칭 서술자의 등장인물 심리 묘사)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외부 지각

초점화 대상이 외부로부터 지각될 경우 관찰은 외부적으로 표명된 것만으로 제한되고 모든 감정적 요소는 그것들로부터 추측된다.

-비명과 더불어 소대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땀이 비오듯 흐른다.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포복을 계속하였다. 의식이 다자꾸 흐린다. 산기슭 흰 눈 속에 덮인 관목 숲이 눈앞에서 뿌여니 흩어진다. 총성은 약간 잦아졌다. 산기슭으로 타고 오르는 순간 선임하사가 스러졌다. 그는 선임하사를 부축하고 끌며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산속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서였다.

여기에서 초점자는 전장의 다소 높은 위치에서 소대장을 포함한 소대원을 조감하다가 주인공인 소대장(그)에게 근접한다. 초점자가 조감자가 되어 초점화 대상(들)을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다시 원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의 감정은 부하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과 극도의 긴장감 및 필사적 탈출을 통한 생명욕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의 긴박은 초점자가 소대장과 총상을 입은 선임하사만을 초점화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리된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그 위엄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요.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좋소.”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독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것이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재었다.

여기서 초점자는 대장과 청년의 대화를 지각하고 있다. 대화 시, 화자-초점자의 존재는 일시적으로 부재한 듯하지만 대화의 사이에 있는 서술들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존한다.

초점화 교체 현상

유예는 전반적으로 외적 초점화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외적 초점화의 양상 가운데 내적 초점화의 특징 또한 강하게 발현되기도 한다. (장면화 혹은 극화(劇化) 의식의 흐름(내부지각)을 외부지각처럼(외부지각화)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때로는 눈보라와 종일 싸워야 했고 알 길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헤매어야 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불안과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잡은 이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나의 지금 이 위치는? 상의할 아무도 없다. 나 하나뿐.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을 헤치며 걸었다.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껏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밤이면 눈 속에 묻혀서 잤다. 해가 뜨면 또 걸어야 한다. 계곡, 비탈, 눈에 쌓인 관목 숲, 깎아 세운 듯 강파르게 솟은 산마루. 그는 몇 번이고 굴러 떨어졌다. 무릎이 깨어지고 옷이 찢어졌다. 피로와 기아. 밤이면 추위와 더불어 고독이 엄습한다. 악몽, 다시 뒤덮이는 악몽. 신음 끝에 눈을 뜨면 적막과 어둠뿐. 자주 흩어지는 의식은 적막 속에 영원히 파묻혀만 간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눈 속에 묻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밤은 지새고 또 새벽은 온다. 그는 일어났다. 눈 속을 또 헤쳐야 한다. 산세는 더욱 험악하여만 가고 비탈은 더욱 모질다. 그는 서너 길이

나 되는 비탈길에서 감각을 잃은 발길의 헛갈림으로 굴러떨어졌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본 정신이 돌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어떤 강한 충격으로 입술을 짹 깨물었다. 전신이 쿡쿡 쑤신다.

이 같이 ‘나’가 주어가 되는 문장들은 외적 초점자의 일시적 소멸이 아니라 내적 초점자의 발현이 어디까지나 외적 초점자의 범주 안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적 초점자의 발현은 외적 초점자의 현존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를 초점화하는 외적 초점자와 마치 내가 ‘나’를 초점화하는 듯한, 그래서 내적 초점자가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두고 초점화 교체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외적 초점화가 일시적으로 내적 초점화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의사 내적 초점화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⁵⁾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잡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함박싸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까.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윗부분은 내적 초점화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이 부분들은 작중인물 - 초점자의 눈이 작중인물 자신을 초점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후로 외적 초점화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사 내적 초점화일 수밖에 없다.

초점자의 규범

화자 - 초점자(외부 초점자=3인칭서술자)에 의해 주 초점화 대상이 되는 인물로 주인공(소대장)이 등장한다. 그리고 주인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적 초점자의 초점화는 일종 친화성을 띠고 있다. 한편 초점자로서의 주인공(내부 초점자=1인칭서술자)에 의해 초점화 대상이 되는 인물로 적대자 및 소대원, 선임하사, 청년 등이 있다

초점자로서의 주인공에 의해 초점화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로 특히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놈’이나,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인 ‘적’이라는 언어적 이념소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초점자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초점자의 심리적 저변에 일종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로서의 이념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5) 명확하게 초점화 교체(시점의 전환)이 아니라, 초점화 교체 현상(의사 내적 초점화)이라는 말로 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점화 교체와 초점화 교체 현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것으로 봐야함.
모두 수능 대비나길, - 국어는 김도성 -

<보기>로 나올만한 내용

유예는 기존 시점론에 의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3인칭 텍스트는 물론이지만 1인칭 텍스트 중에서도 외적 초점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있다. 초점화와 관련, 유예는 외적 초점화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외부지각과 내부지각 중 특히 후자가 인상적이다. 그런데 텍스트의 몇몇 부분에서는 내적 초점화로 보아지는 곳도 발견된다. 이는 유예가 내적 초점화를 토대로 한 외적 초점화라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 유예는 이 두 개 초점화의 상호작용 상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유예의 문학성이 될 것이다.

유예에서 외부지각과 내적 초점화 지향의 내부지각은 각각 유예의 전장(戰場)으로서의 현장성과 주인공의 심리부각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상황과 개인의 갈등을 예각화하려 했던 작가의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유예는 전쟁 또는 전쟁 직후라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의 특별한 서사적 응답물, 즉 개별자로서의 인간존재의 가치를 제시한 소설로서의 사적 의미를 떨 수 있었던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사시가는 일반적으로~노래를 뜻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부분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적합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사시가는~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유사한 측면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찾기

(나)의 <2수>에서 '깨우는구나', <4수>에서 '깊도다'와 (다)의 <추1>에서 '피웠구나'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에는 부르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 (다)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 (다)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 (다)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4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 파악하기

(다)의 <춘2>와 <동1>에서는 봄과 겨울이라는 일 년 사시가 드러나지만 그 안에 하루의 사시인 아침, 낮, 저녁, 밤이 모두 포함된 형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밝히고 있고 <2수>에서는 '녹음'을 통해 여름을, <3수>에서는 '벼 벤 그루터기'를 통해 가을을, <4수>에서는 '눈'을 통해 겨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일 년 사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일 년 사시인 사계절만을 나열하고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하1>에서 '녹음'에서 여름의 이미지를, '낮둡'에서 낮의 이미지를 알 수 있고,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제적1>에서는 '새해 온다'를 통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2

[출제의도] 작품 감상하기

[A]의 '역군은이샅다'에서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대부층의 의식이 드러나 있어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그물 낚고', '산전을 훑매'는 것은 노동의 모습으로,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끼오자'에서 긴 잠을 자고 일어나고자 노래를 청하는 여유로운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비즌 술 걸러라'에서 술을 마시며 가을의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3

[출제의도] 대상의 의미 파악하기

⑧는 '낙디에 재미가 깊도다'를 통해, ⑩는 '새해 온다 즐겨 마라'라는 화자의 충고를 통해 모두 현재의 상황에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⑧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⑩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⑧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⑧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6) 2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에서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에서는 질화로와 관련 있는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7) 1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가을 달 밝은 밤에 외롭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둘 다 감정이 노출되어 있다. ④ (나)에만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 있다. ⑤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8) 4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꿈'은 임과 헤어져 외로운 상태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추억'은 이웃집 늙은 부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질화로, 머슴과 노인들의 질화로, 부모님과 관련된 질화로 등 다양한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

9) 5

추론적 사고(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침변' 즉 임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것은 설중에 혼자 피어 있는 매화이고, 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③ 죽어서 변하지 않는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의 학이 된다는 것은 임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4

추론적 사고(부분적 감상)

정답해설 : 겨울밤이 어느덧 밝은 녘이 되었다는 것은 질화로를 둘러싼 정겨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질화로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놀이를 하는 추억어린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 겨울밤이 무료하거나 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11) 3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질화로를 가지고 있는 정감어린 이미지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 시절의 회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질화로를 통해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 분주하게 놀이를 하는 머슴들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적 감각, 아버지의 고서 읽는 소리가 들리는 청각적 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12) 1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두견의 낮이 되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두견', '구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반어적 표현이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기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④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빗대어 비유는 풍자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오색은 깊은 곳에 자청전 가렸으니'와 같은 묘사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물(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체적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13) 2

시어 및 소재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지척에 나아 앉아', '흥중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되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구름'이 되어 시적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이다.

[오답피하기] ① '꿈이라도 갈등 말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만리'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먼 거리를 의미한다. ③ '흘리 날아', '날아올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은 '구름'이 된 화자를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후신인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을 굴원이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함께 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백구'는 화자의 벗이 되고 있다.

14) 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 1>의 '연군의 마음'이라는 진술을 통해 지문이나 <보기 2>에 있는 '임'은 임금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③에서 [C]의 '백옥 같은 이내 마음'은 임을 위해 지킨 마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옥 같은 얼굴'은 임의 얼굴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금의 얼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식어지어 ~ 두견의 낮이 되어', '식어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임과 만나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한다. ② '쓸커시 사되리라', '슬카장 삶자 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마음껏 임금께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 ④ 임금 곁을 떠나 '일모 수죽'이나 밤중 '모침'에 처해 있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냉박할사', '찬 자리'와 같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임 계신 데'를 바라보는 화자와 '임이 어디 간고'라고 탄식하며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연군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15) 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쫓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임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임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빗취어든'은 '비치거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자가 달빛에 비

친 그림자가 되어 임의 옷에 가 닿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술'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건덕궁'은 임이 거쳐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② (가)의 '질삼뵈'는 화자에게 중요하지만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나)의 '빈 낙대'는 사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로, '질삼뵈'와 '빈 낙대'를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이 아닌 화자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④ (가)의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신의(信義)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하실까?' 정도로 해석되며,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을 돌 불근 밤'은 임과 헤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월중'은 임의 옷에 비친 그림자라도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들은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공산'에 거쳐하며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오르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②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깨끗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님의 귀에 들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이별로 인한 '흔'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흔'의 정서를 형상화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17) 2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와 [B]에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두 부분은 각각 고려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된 작품이므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라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반면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18) 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상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봉래산의 개연초를 얻으러 가는 길이므로, 상서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봉래산'이다. 용자는 상서에게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다며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③ '항아께서 ~ 모셔 오도록 명했으나'에서 장 승상이 사향이 속향을 포함한 사실을 알고 속향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속향이 '갈대밭'과 '낙양 옥중'에서 겪을 곤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며, 선녀는 속향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

19) 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용자의 '저 혼자 가면 아무 데도 걸릴 것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통해 용자는 ㉠, ㉡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상서가 선계를 지나기 위해서는 용왕의 공문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은 용왕의 조력을 통해 상서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의 왕인 경성은 용자가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이라고 하자 '즉시 공문에 날인'하고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태을성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존재로, ㉠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지키는 공간이다. ③ 용자가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 나고'라고 말한 부분을 볼 때 ㉡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 상서는 용자와 ㉠을 거쳐 ㉡으로 향하고 있다.

20) 2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에서는 용자가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용궁에 큰 변이~일이 생길 것'이라며 상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21) 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상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낸 것은 천상의 죄업 때문이며, 이것을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는 것에서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선군을 마지못해 귀양 보낸 것과 달리 속향은 고행을 겪게 한 것에서 천상의 죄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1

[출제의도] 제시된 장면에 드러나는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용녀는 선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옥제의 말을 인용하여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라는 말을 전하며 속향의 미래를 알려 주고 있다. 또 속향이 선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녀가 속향에게 '~앞에 또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태을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속향의 미래를 알려 주고 있다.

23) 2

[출제의도] 적장 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용녀는 옥제가 물을 지키는 관원에게 속향을 죽이지는 말고 옥만 보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김 상서의 딸인 속향을 구하기 위해 자원해서 인간계로 왔다고 했으므로 옥제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계에 왔다고 볼 수는 없다.

24) 1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슬 같은 차'는 속향이 천상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고, '동정 굴 같은 것 두 알'은 속향이 천상의 기억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25) 1

[출제의도] 이야기에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사향은 속향을 모함하여 옥제에게 벌을 받아 죽었으므로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을 지닌 '자업자득'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부화뇌동 :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③ 와신상담 :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 ④ 고진감래 :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⑤ 풍전등화 :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 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상서는 여부인의 말을 받들어 속향을 죽이려 하다가 이선과 떼어 놓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바꾸고 있다.

①은 새로 부임한 낙양 수령은 상서의 명에 따라 속향을 풀어준 것이지만 속향을 동정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다. ③에서 여부인은 상서 몰래 속향의 혼인을 주관하였다. ④에서 속향은 이선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원통해 하고 있다. ⑤에서 이선은 속향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할미 집에 가지 않았다.

27) 2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A]에서는 여 부인은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한 것일 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동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이선이 미천한 사람과 혼인하여 조정이 들끓었다는 것을 통해 당대 지배층들이 봉건적 신분 질서를 고수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 질서에 대한 지배층의 비판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29) 1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①에서 속향은 이선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한탄하고 있으므로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 속 깊이 맺힌 원한'을 이르는 ①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적절하다.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뜻을 전함.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매우 두려워하며 조심함.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

30) 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랑과 속향의 만남 과정에서 '마고할미', '화덕진군' 등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다는 내용에서 이들이 비현실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비현실적 요소로서 속향과 이랑의 만남이라는 중심 서

모두 수능 대비나길, - 국어는 김도성 -

사에 개입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인물들의 내적 독백의 형식이 쓰이지 않았다. ③ 대화나 행동으로 주로 사건이 진행되고,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첫 부분 노옹이 이랑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이랑이 속향을 찾으려 여기저기 다녔음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다. ⑤ 언어유희를 사용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31) 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구조를 파악한다.

이랑이 황금 일정을 가지고 할미 집을 가는 것이 두 번째 만남(㉑)이다. '선시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와 같은 부분에서 ㉑ 이전에 ㉒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만남(㉓)에서 이랑은 할미에게 진주를 건네 준다. 전체 문맥을 통해 할미는 이랑에게 속향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㉒에서 할미는 속향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랑을 속여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만든다. 이랑과 속향의 만남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다. ② 이랑이 노옹을 만난 것은 ㉒와 ㉑ 사이이며, 거기서 화덕진군인 노옹이 이랑에게 마고선녀가 이랑을 속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③ ㉑에서 할미는 속향을 '결인'이라 말하는 것은 이랑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⑤ ㉒에서 ㉓로 진행될수록 이랑은 속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는데, ㉓에 이르러서는 진주를 보여 주면 만남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속향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32) 2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속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 놀라는 장면은, 노옹의 조화와 관련이 있다. 노옹은 이랑에게 마고할미가 거짓말을 하거든 확인해 보라며 속향이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웠다. 이것이 속향의 뜻밖의 시련을 겪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랑이 노옹을 만나 할미의 말을 믿고 표진강가까지 갔는데, 이는 이랑이 속향을 찾기 위해 순조롭지 않은 여정을 떠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랑과 속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전생 일을 알고 있는 이랑이 속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생에 둘이 인연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④ 이랑이 속향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속향은 진주를 통해서 할미가 말한 인물이 이랑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징표에 근거하여 인연을 확인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33) 1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의 적절한 반응을 추론한다.

이랑은 속향과의 만남을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따라서 이랑이 속향을 만난다면 감개무량할 것이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또는 그런 감동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면중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 배반함.'을 가리킨다. ③ '의기소침(意氣銷沈)'은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전전공정(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한다.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가리킨다.

34) 5

[출제의도] 작중 인물들의 태도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속향은 남편인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거절하면 신하로서 황제의 명을 여기게 되니 옳지 않다고 했고, 매향이 평생을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니 그녀로부터 원한을 살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런 이유로 속향은 매향과의 혼사를 받아들일도록 중용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매향이 타문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 한번 정해진 혼약은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② 황제는 처음에는 이선을 두둔하지만 나중에는 양왕의 편에서 일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다.

35) 5

[출제의도] 일정한 증거에 의해 작중 인물의 행위를 비판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양소유는 다른 여자와 이미 혼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마로 삼겠다는 황제의 명에 대해 당당하게 거절 상소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병을 핑계로 내세워 혼사를 피하려는 이선의 행위가 비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혼인은 이선 자신과 집안의 일이니 매향과 혼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거절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순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 ③ 이선이 매향과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④ <보기>의 양소유도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36) 5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특징을 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선은 자신이 왜 청병하면서 혼사를 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속향을 납득시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매향과 혼인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열거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런데, 여기서 이선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는 맞지 않은 설명이다.

37) 4

[출제의도] 예상되는 줄거리의 근거를 글 속에서 찾을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몽에서 선관이 '매화나무(→매향)에 오얏나무(→이선)를 접하면'이라 한 것은 매향과 이선의 인연을 예언한 말로, 그렇게 되면 '지엽이 번성하리라'고 한 것은 자손의 번창을 예언한 말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매향이 이선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 점, 그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기>와 같은 줄거리를 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왕이 양왕에게 사과한 일은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일이 없다고 해도 <보기>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8) 3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부분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 부분에서는 사향, 부인, 승상, 속향이라는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속향의 행동과 용녀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답] ③

[오답풀이] ① 속향의 적개심이 달리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산문투로 진술되어 있다.

39) 5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사향은 혼자서 일을 꾸며서 속향을 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으로는 먼저 속향에게 도둑질의 누명을 씌우고, 뒤에 속향이 외인과 상통하는 것처럼 부정한 행실의 누명을 씌운다. 승상은 속향을 추방할 것을 지시하고, 속향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답] ⑤

40) 3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속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속향전을 읽는 사람들이 겪었음직한 현실적인 경험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속향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동질감과 함께 비감(悲感)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풀이] ① 적감은 비현실적인 경험이다. ② 용녀는 예정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④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지만 운명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⑤ 안정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루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41) 1

어휘 어법(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㉑에 나타나 있는 속향의 처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기호지세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답] ①

[오답풀이] ②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③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④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42) 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전기수가 사람들에게 국문소설을 읽어 주다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장면에서 읽기는 멈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질 부분에서 멈추게 함으로써 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㉑에서는 속향이 물속으로 뛰어든 후 난 이후의 위기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읽기를 멈춘다면 독자들은 궁금증이 생겨 빨리 읽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43) 3

등장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숙부인'은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땅은 명사계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 보셨나이까?'와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속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옮겨 여겨 속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하니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반은 죽은 사람이라.'라는 진술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낸 표현이 아니라 서술자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에서 첩첩산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새들마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오갈 데 없는 숙향의 힘든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에서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 가다 궁궐의 '큰 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후토 부인'이 있는 '명사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큰 문'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에서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라는 진술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므로 ㉣은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은 '원통'의 발언으로 '숙향'에게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종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B]에서 '후토 부인'은 자신을 '한낱 조그마한 신령'으로, '숙향'을 '월궁의 으뜸 선녀'로 칭한 후,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의 일시적인 고생을 겪더라도 본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피하기] ㉠ [A]의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의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 어찌 하시나이까?'라는 진술은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 [C]의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 [C]의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에는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46)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부처가 이선에게 서왕모의 잔치에 구경을 가자고 권하니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서왕모의 집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이선이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이선은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선이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 숙향은 부모와 떨어져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차에 청조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니 청조를 따라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숙향이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음을 알 수 있다. ㉢ 숙향은 청조를 보고 자신처럼 부모를 여의었는지를 물으며 혼자 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향이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오리오리하다'는 것은 '모양이나 규모가 압도될 만큼 굉장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서왕모의 집에 이른 숙향은 너무 오리오리하여 문밖에서 주저하고 있으며, 이선은 너무 오리오리하여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47) 2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은 숙향에게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언급했으며, 옥황상제에게 숙향이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8) 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이선은 부처가 준 ㉡를 받아먹고 전생에서 하던 일을 떠올려 모든 선관이 자신의 친한 벗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가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다. ㉡ 숙향은 ㉣를 이선에게 가져다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데 ㉢가 계화에 걸려 떨어진 일로 숙향은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 ㉢는 모두 숙향과 이선의 만남을 극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는 이선이 숙향과의 일을 기록하게 만들고 있으나, ㉡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49) 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3월 보름'에 숙향은 '청조'를 '초당'에서, 이선은 '부처'를 '대성사'에서 만나고 있다. 만남의 시간적 배경은 일치하나 공간적 배경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물들과 비현실적 존재들의 만남의 배경인 '3월 보름', '초당', '대성사'를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 숙향과 이선은 잠이 든 후 비현실적 존재들에 이끌려 서왕모의 집에 이르렀다. ㉢ 숙향과 이선은 모두 요지에 이르러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 체험을 했으나, 그 체험에 동일한 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 숙향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제가 이선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이선이 체험하는 장면에서는 이선이

겪은 일로 서술되고 있다. ㉤ 숙향이 환상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옥황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고 있다. 이는 숙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환상 체험을 통해 미리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